

- 21, 飛天像一部(縱一六、橫六)
- 22, 胴體一部(縱一四・五、橫八・五)
- 23, 胴體一部(縱一四、橫一〇)
- 24, 胴體一部(縱一二、橫七)
- 25, 胴體一部(縱一一、橫七・五)
- 26, 胴體一部(縱一一、橫八)
- 27, 災害極甚部(不明)(縱五一、橫三六)
- 28, 頂上에 龍紐의 部分(縱六・二、橫七)
- 29, 鐵製縣索完存(總長五八、幅一一、縣索長三六・五)

註

- ① 現存最古의 在銘鐘인 五臺山、上院寺鐘에도 鐵製方框과 連鎖로서 結構된 鐵索이 달려있어 注目된다.
- ② 이 鐵壺의 發見地點은 후시 鍾閣址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銅鍾을 埋藏할 때 이 鐵壺만은 原位置에 남겨두지 않았을까 한다.
- ③ 鍾下에 陶壺가 埋藏되어 있는 現存例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忠南 禮山郡 香泉寺銅鍾(洪思俊氏談)
서울 安岩洞 開運寺銅鍾
以上은 모두 李朝下代의 鑄鐘이다. 筆者가 目擊한 日本의 遺例로서는 東京都 武藏野 深大寺銅鍾下에 鐵金形이 裝置되고 그 위에 多禮鐵蓋가 덮여 있었다.
- ④ 五臺山 上院寺鐘은 李朝睿宗元年 西紀一四六九年에 慶北安東의 樓門으로부터 移懸된 것이다.
拙稿·「五臺山 上院寺銅鐘의 搬移事實」(歷史學報)所載)
⑤ 禪林寺址 隣近部落 古老에 의하면 이것은 「松都末」(高麗末代)까지 存續하였다는 口傳이 있다고 한다.

扶餘 羅福里의 櫛文土器

金 元 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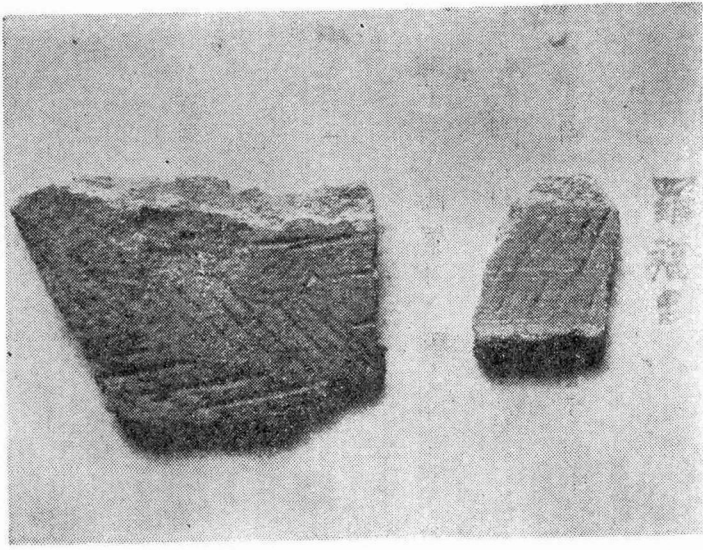
扶餘 羅福里는 石器散布地에서 有名하며 磨製石劍、石鏃、半月形石刀

第一卷 第十二號 通卷十七號

및 無文土器片들이 數없이 採集되고 있다. 그런데 國立博物館所藏 土器片 中에 二片의 羅福里出土 櫛文土器가 있다. 二片 모두 黃褐色 胎土로서 砂粒이 섞여 있고 두께는 〇・七cm、表面에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 있는데 大片에서는 陰刻한 것이 아니고 骨片 또는 貝殼緣邊같은 것으로 누르면서 陰線을 나타낸 것이고 小片도 마찬가지로 施文後에 表面을 손으로 문지르고 지나가 文樣이 희미해지고 있다.

× × ×

櫛文土器는 無文土器와 別系統의 土器며 두 遺蹟 사이에 根本的으로 地域的인 相互隔離가 看取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仔細히 檢討하면 이 두 土器가 石器時代末期에 서로 接觸을 始作해 櫛文土器遺蹟에서 無文土器가 나오고 無文土器遺蹟에서 櫛文土器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無文土器遺蹟에서 發見되는 櫛文土器片은 반드시 여기 보는 따위의 魚骨文뿐이며 典型的인 櫛文土器遺蹟에서 發見되는 點文土器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石器時代末期에 와서는 이러한 魚骨文만이 남아 있고 點文系土器는 消滅했던 모양이다.



羅福里에서 나온 二片的 櫛文土器는 서울附近的 無文土器地帶 例를 들면 高陽郡 楊州郡等 地域에서 發見되는 櫛文土器와 같으며 亦是 江畔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櫛文土器文化와 接觸을 갖기 始作한 石器時代末 期の 無文土器遺蹟에서 나오는 櫛文土器라고 할 수 있다.

(六一, 十二, 二日)

宿水寺址出土銅佛

秦弘燮

一九五三年 現紹修書院인 宿水寺址에서 數十軀의 銅製佛像이 發見된 일이 있는데(註) 여기 紹介하려는 二軀의 銅佛은 그와 同時에 發見되었던 것으로 發見者가 保管하고 있다가 最近에 國立博物館에 收藏된 것이다.

一、金銅如來立像 高一四·三cm

正面直立한 像으로 顔面은 整齊되었고 細眼正視하고 있으며 肉髻는 比較的 적다. 목은 若干 感覺을 주며 三道는 없다. 通肩한 法衣속에 左肩에 걸친 內衣가 보이고 두 팔에 걸친 法衣가 腹前에서 二量으로 U形을 그리다가 밑에는 左腋에서 흐르는 線이 오른쪽 밑으로 흘러 내려왔다. 衣端은 발목위에서 끊어졌고 그 밑으로 內衣가 발목까지 내려오고 있다. 右手는 施無畏印이고 左手는 指端이 切斷되었는데 아마도 捧鉢하고 있는 것 같아 藥師如來像같이 보여진다. 伏蓮臺座는 六角으로 十三葉의 細長한 單瓣蓮花가 있다. 背後에는 若干의 衣紋이 보이기는 하나 거의 背面表現意識이 없고 어깨 中央에 突起가 있어 그 끝에 작은 圓孔이 있음은 原來 光背가 具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鍍金이 많이 남아 있고 頭部가 若干 앞으로 쏠리고 腹部가 내밀린 側面觀은 新羅統一期の 佛像을 보는 것 같으나 三道가 없는 點이라든지 若干 筋目이라든지 下體의 衣端處理는 完全히 새로운 樣式으로 移行

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그 造成年代는 八世紀 前半에 두어야 할까 한다.

二、銅製如來立像

高一六·八cm

正面한 立像으로 肉髻는 比較的 크고 顔部는 옆이 모가나서 立方體같은 感覺을 준다. 顔部에 若干의 破損이 있다. 三道는 없고 右肩偏袒한 法衣가 斜線을 그리면서 발목위까지 내려왔고 그 밑으로 內衣가 보인다. 右手에는 捧珠하고 左手의 指端은 切斷되었으나 與願印임을 알 수 있다. 左膝을 若干 들어서 體重을 右脚에 실은 故로 右手와 右便腰部와의 接觸部가 이상하게 髳뭉쳐져나왔다. 이것은 以上과 같은 姿勢의 軀도 있지만 全身에 甚한 火傷을 입고 있는 故로 그런데도 原因이 있는 것 같다. 前面 右半에서부터 右側面에 걸쳐 破損된 圓形臺座에는 八葉의 潤瓣 複蓮瓣이 있다. 背面的 表現은 前者와 같고 後頭部에 突起가 있어 亦是 原來 光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全體의 造形이 매우 素樸하고 三道가 없는 點이라든지

圓座 蓮瓣의 끝이 말리지 않은 點 등으로 보아 그 製作年代가 前者와 비슷할 것 같으나 先後를 따진다면 本像이 앞설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鍍金의 痕跡은 찾을 수 없으나 原來 없었는지 火傷으로 因한 溶解인지는

